

## 『나의 한국현대사』 독자님께 드리는 사죄의 말씀

유시민 선생의 새 책 『나의 한국현대사』가 여러 오류를 범한 채 출간된 데 대하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오류는 편집 과정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편집 작업의 실패로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그저 송구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책임을 통감하며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1. 서점에 배포되어 재고로 남아있는 초판 1, 2쇄본은 전량 수거하겠습니다.
2. 친필 사인본을 비롯하여 초판 1, 2쇄본을 구입하신 분들께는 본인의 의향에 따라 정오표를 보내드리거나 수정된 책으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도서교환을 원하시는 분은 구매하신 도서를 출판사 착불로 택배를 보내주시면 수정본으로 교환하여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불편을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거듭 사죄의 말씀 드리며 책 만들기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2014년 7월 11일

도서출판 돌베개 대표 한철희 드림

- **도서 교환**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주소로 연락처와 함께 구매하신 도서를 출판사 착불로 보내주시면 수정본으로 교환하여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반송하신 책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77-20 (문발동) 도서출판 돌베개 3층 영업부 담당자 앞)
- **관련 문의**는 031-955-5028 혹은 [cinei33@dolbegae.co.kr](mailto:cinei33@dolbegae.co.kr)로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초판 1, 2쇄본 정오표 다운로드**는 돌베개 홈페이지([www.dolbegae.co.kr](http://www.dolbegae.co.kr)) 자료실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나의 한국현대사』 초판 1·2쇄 정오표

	변경 전	변경 후
73쪽 위에서 12행	1936년	1937년
79쪽 위에서 11행	서울시경 남영동 대공분실	치안본부 대공분실
81쪽 아래서 5행	일본군	만주군
88쪽 위에서 14~17행	국회의원 총선을 해서 민의원 과 참의원 양원제 국회를 만들 었고 새 국회는 내각제 개헌안 을 의결했다. 새로운 헌법에 따 라 선거를 한 결과 대통령에는 윤보선, 총리에는 장면이 당선 되어 제2공화국이 출범했다.	국회는 내각제 개헌안을 처리 하고 총선을 실시해 새로운 양원제 국회를 구성했다. 그 리고 대통령에는 윤보선, 총 리에는 장면을 선출해 제2공 화국을 출범시켰다.
130쪽 위에서 8행	김수길	이수길
157쪽 위에서 5행	2011년	2001년
159쪽 밑에서 2행	2010년	2000년
193쪽 각주 밑에서 5행	외무성	무역성
198쪽 위에서 9행	김병금	김병리
215쪽 밑에서 8행	이홍선	우홍선
244쪽 위에서 1행	빳줄	밧줄
317쪽 위에서 6행	1982년	1980년

198쪽 3~23행(문단 교체)

불법 연행해 고문했다. 정부는 야당과 혁신계 인사들을 투쟁의 배후로 지목하고 이념공세를 시작했다.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을 발표했다. 도예중, 이재문, 박현채, 김중태, 김정강, 현승일, 김정남, 김도현 등 기자, 교사, 대학생들이 인민혁명당이라는 지하당을 만들어 국가변란을 획책했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벌였다고 47명을 구속했다. 그런데 서울지검 이용훈 부장검사와 김병리, 장원찬 등 수사검사들이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다며 기소장 서명을 거부했다. 결국 도예종 씨가 반공법 위반으로 최고 징역 3년을 받는 등 일부 유죄선고가 나기는 했지만 북한과 연계된 증거가 드러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1차 인혁당 사건'이다.

1965년 2월 한일 양국 정부 회담 실무자들이 「한일기본조약」에 가조인하자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6월 3일 박정희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전국적 거리시위가 일어났다. 이것이 '6·3사태' 또는 '6·3항쟁'이라고 하는 대중투쟁이다. 수만 명의 시위대가 중앙청이 있던 서울 세종로 일대 거리를 점거한 가운데 곳곳에서 최루탄이 터지고 격렬한 투석전이 벌어졌다. 4·19와 비슷한 풍경이었다. 정부는 서울시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수도경비사령부 병력을 투입했으며 대학에는 휴교령을 내렸다.

한일 양국 외무부장관은 ~~~

→ 불법 연행해 고문했다. 6월 3일 박정희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전국적 거리시위가 일어났다. 이것이 '6·3사태' 또는 '6·3항쟁'이라고 하는 대중투쟁이다. 수만 명의 시위대가 중앙청이 있던 서울 세종로 일대 거리를 점거한 가운데 곳곳에서 최루탄이 터지고 격렬한 투석전이 벌어졌다. 4·19와 비슷한 풍경이었다. 정부는 서울시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수도경비사령부 병력을 투입했으며 대학에는 휴교령을 내렸다.

정부는 야당과 혁신계 인사들을 투쟁의 배후로 지목하고 이념공세를 시작했다.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을 발표했다. 도예종, 이재문, 박현채, 김중태, 김정강, 현승일, 김정남, 김도현 등 기자, 교사, 대학생들이 인민혁명당이라는 지하당을 만들어 국가변란을 획책했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벌였다고 47명을 구속했다. 그런데 서울지검 이용훈 부장검사와 김병리, 장원찬 등 수사검사들이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다며 기소장 서명을 거부했다. 결국 도예종 씨가 반공법 위반으로 최고 징역 3년을 받는 등 일부 유죄선고가 나기는 했지만 북한과 연계된 증거가 드러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1차 인혁당 사건'이다.

1965년 2월 한일 양국 정부 회담 실무자들이 「한일기본조약」에 가조인했고 양국 외무부장관은 ~~~